

자동차 회사들 더 이상 법과 상식 무시말라

목돈 지불하고 기대에 부풀어 새로 구입한 자동차가 재고차, 전시차, 반팔차 심지어 수리한 차인 경우, 또는 운행 중 자동차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소비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물론 자동차는 공산품이라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불량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의도적인 사기 판매라든지, 고쳐도 못 고치는 고질적인 결함이라든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자동차 회사가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형식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소비자들은 남의 일로만 여기던 일이 자신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과민 반응까지 보인다.

게다가 거짓말이나 부도덕한 처사가 있었던 사건임에도 자동차 회사가 오리발을 내밀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해 버리면 소비자들은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해결을 할 듯한 전의를 불태운다. 인터넷과 언론 등에 호소하거나, 소비자원에 접수를 하거나, 경찰, 검찰, 법원 등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개중엔 일부 강경한 소비자들은 시위를 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 소비자들은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손해를 입게 되고 삶은 파헤쳐진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시간만 흐르면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극히 일부 소비자들이 어렵게 연맹을 찾아내고 도움을 요청한다.

나는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회사에서 환불·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이 전문이다"라고 즐겨 이야기 한다. 물론 연맹에서 판단하여 환불·교환이 당연한 사건임에도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를 방치 우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한 번은 국내 최대 자동차 회사의 소비자 문제 처리 담당자가 "연맹 사이트에 환불·교환 대상이라고 적어 놓은 사건들은 소비자



이정주 칼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

와의 협상이 매우 어렵다"며 애로를 호소한 적도 있다.

하지만 연맹에서 100% 해결해 줄 자신이 있어도 "환불·교환을 장담한다"거나 "책임 지고 해결해 주겠다"라는 등의 호언장담은 절대 안 한다.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도 자동차 회사가 꿈쩍도 하지 않으면 공권력이 없는 연맹으로서 언론, 인터넷, 국토부, 공정위, 법원, 검찰 등을 통하여 처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흐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이유는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마지못해 보상을 해 줄 때는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에게 "연맹에는 그냥 힘들어서 포기하겠다고 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하거나 "연락을 끊으라"고 요구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엄청난 도움을 받고도 주저 없이 연맹에 등을 돌려버리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해 버린 소비자들도 있었다. 자동차 회사가 돈이 없어서 또는 돈이 아까워서 당연히 해 주어야 할 보상을 안 해 주고 미친 척하며 버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비용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여론이 무섭고, 보상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다. 파급 효과를 겁내어 보상을 안 해 주고, 소비자들에게 합구를 요구했는데, 이제 미래의 많은 피해 소비자들을 위해 연맹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만천하에 공개하려 한다.

시간이 오래된 사건들이라도 지금까지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어 온 자동차 회사들의 질이 안 좋은 사건들부터 적나라하게 공개하려 한다. 독자 여러분은 국산차, 수입차를 막론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이 정도로 못할 짓을 했는가, 또는 그렇게 후하게 보상을 해 주었는가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언론과 검찰, 심지어 법정에까지도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의 담당 직원들과 임원들은 물론이고 회사 법무팀 또는 회사에서 선임한 변호사들까지도 언론 및 검찰과 법원에서 태연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한 그런 거짓말들이 적당히 통해서 그냥 유아무야 넘어가게 되고, 수 많은 억울한 소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연맹이 예나 지금이나 철저하게 지키는 기준이 있다. 연맹의 지적이나 협조 요청에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해 준 사건들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사건들까지 연맹의 업적이라며 공개해 버린다면 보상해 줄 것 다 해 주고도 공개 망신은 망신대로 다 당하는 격이라 파급 효과를 무시하려는 자동차 회사들이 향후 연맹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연맹은 물론 피해 소비자들을 무시한 자동차 회사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거짓말로 위기의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오만방자한 만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널리 공개하려 한다. 특히 많은 도움을 주던 연맹을 한 순간에 뺏겨 버린 것만 만들어 버렸다고 패배를 불렀던 회사들은 자신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진통' 있겠지만 집값은 잡혀야 한다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대책의 '끝판 왕'이라고 불리는 민간택지지구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전역·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특정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의 완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 적용시점도 '입주자 모집입선 신청' 단계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를 더해 일정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주변시세나 최근 분양가와 비교했던 기존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한 가격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로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의 집값이 최근 다시 꿈틀대자 작년 9월13일 이후 11개월 만에 정부가 추가대책을 꺼내든 것이다.

이는 공공택지만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

양가도 정부가 적정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시장 재 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시장과열 지역에만 '핀셋적용' 함으로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축단지 공급 위축으로 되레 주변단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을 불식했다.

최근 일부지역의 턱없는 분양가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고조시켜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현행의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전매제한 강화 및 의무거주기간 도입을 한다지만 투기과열지구 중심으로 분양시장 풀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편법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비정상적인 집값은 잡혀야만 한다. 이번 개정안이 10월 초 공포·시행되기 전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되기를 바란다.

상속세 완화로 '착한 부자' 많이 만들지는 재계의 고언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면세범위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상속세제 중 최대주주할증평가 및 공익법인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공익재단을 통한 대기업오너의 지배력 확대를 백안시하기보다 이를 장려해 공익목적의 재분배 활성화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경영의 연속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두 토끼'를 잡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고언으로 이어진다. 또한 최근 '극일'의 방법론으로 제기된 소재·부품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도 상속세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공감 가는 의견으로 여겨진다.

현재 일반 공익법인에 기업이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증여세 면세범위는 발행주식의 5%까지다.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 산하가 아닌 성실공익법인에 1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이는 공익법인 활성화가 이뤄진 미국에 비해 2~4배나 적다. 게다가 최대주주 상속주식 평가액을 일반보다 10~30% 더하는 할증평가제도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65%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인 것도 사실이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세대가 바뀌어도 영속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독일, 일본 등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또한 공익법인의 사회재분배 '선순환 효과'는 미국의 기업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의 영속성은 기술개발을 넘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업의 편법승계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와 감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오랫동안 우리경제와 사회에 공헌할 '착한 부자'를 많이 만들지는 의견에 정부도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승진 △전북지방우정청장 정창림 ◇과장급 전보 △전파정책기획과장 이현호 △연구제도혁신과장 이재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담당관 강승완 △사문건의과장 송순철 △중앙지역과장 김종진 △남부지역과장 이준학 △미주지역과장 안진용 ◇과장급 인사교류 △우라시아지역과장 김시수원시 ◇2급(지방 이사관) 임용 △조무영 에셋원자산운용 ◇신규 임원 선임 △마케팅본부장 상무 김병관
경향신문 ◇보좌변경 △정치부 박영환 △스포츠편집·온라인부 김혜정

데일리안 △정책경제부장 배근득 △시장경제부장 조태진
부고 △송경주씨 별세, 송민현(대구 지방경찰청장)씨 부친상 = 11일 오후,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특302호, 발인 14일 오전 5시30분. 053-560-9551
△변탁(전 태영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변준호(제이글로벌 대표)씨 부친상, 정영욱(한국원자력연구원 융복합양자과학연구소 소장), 장우영(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씨 장인상 = 11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14일 오전 8시15분 02-2258-5940
△양창길씨 별세, 박현수(경기도 언론협력

담당관실 주무관)씨 장인상 = 11일 오후, 부산 수영구 서호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4일 오전. 051-915-6090
△박무자씨 별세, 지창환(KBS광주방송총국 전 보도국장)·정환(광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장)씨 모친상, 김태호(여진해운 부장)씨 장모상 = 12일 오전 3시21분, 전남 순천시 정원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14일 오전 7시. 061-754-4444
△고순제씨 별세, 모창희(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장)·창기(위싱턴주립대 교수)·창오(사업)씨 모친상 = 12일, 인천금강장례식장 401호,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032-424-4455

<p>아시아타임즈 www.asiatime.co.kr 대표 전화 (02) 801-1800 팩스 (02) 801-1819</p>			
<p>발행·대표이사 조용하 사장겸 편집국장 임춘성 주필 강현직 인쇄인 이정자</p>			
<p>2013년 7월 1일 창간 2013년 1월 10일 등록번호 서울 가 0992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p>			
<p>광고국 (02) 801-1814 편집국 (02) 801-1850 팩스 (02) 801-1859 정치경제부 (02) 801-1823</p>	<p>사회부 (02) 801-1861 산업부 (02) 801-1855 금융증권부 (02) 801-1823 건설부동산부 (02) 801-1852</p>	<p>생활경제부 (02) 801-1863 문화부 (02) 801-1861 편집부 (02) 801-1851 전국부 (02) 801-1822</p>	<p>윤전부 (02) 3666-0041-3 (외주 인쇄 가능) (우)100-01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1길 27 프라임빌딩 8층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

여름철 중국 골프 중 가장 시원 한곳

중국, 단둥 오룡 온천골프장 (인천, 부산, 청주, 대구 출발가능)

- ▶ 향사 없는 청정지역, 해발 650M 한여름에도 시원한 곳
- ※ 골프텔, 1일/3식, 그린피, 카트, 캐디피 포함 (평일:36홀, 주말:18홀) 단, 여름 성수기 기간은 18홀 기준.
- 1일: 10만원 (9월 15일 이후 9만원)**
- ※ 항공료별도(심양공항), 단둥페리(단둥 항) 왕복 약 27만원(6인실 기준)
- ※ **골프+백두산 관광도 가능합니다 (별도 문의)**

최고의 휴양지, 코타키나발루 (보루네오 섬)

코타키나발루, 쿠닷 골프장 (인천, 부산, 대구, 무안 출발가능)

- ▶ 바닷가에 위치, 바람이 불어 사계절 시원한 곳
- ※ 마리나호텔, 1일/3식, 그린피, 카트포함(평일:27홀, 주말:18홀)
- 비수기 1일: 8만원
- 성수기 1일: 11만원(12월 1일~3월 10일) (라운딩 안할 시는: 호텔, 1일/3식 6만원)
- ※ 항공료별도: 약 30~35만원 정도

(주)골프비즈코리아

GOLFBIZ KOREA

www.golfbiz.kr

상담문의 02) 784-6660